

## 동성친구가 너무 좋습니다 🐼

Q) 동성친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남녀공학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 남학생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같은 남학생인데, 운동을 잘하는 부반장이 자꾸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애를 좋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이제는 그 애를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A)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십시오.

청소년기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정신적인 적응을 준비해가며 여러 가지 심리가 발달합니다. 신체적 변화, 정신적 변화, 인지적 발달 및 가정과 사회의 요구로 인해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긴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겪는 갈등과 고민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성숙한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지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겪는 몇 가지 정상적인 심리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시기에는 성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해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즉, 남자는 남성답게 여자는 여성답게 신체적, 심리적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발달에 따라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따라서 다른 친구들과 외모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므로 몸매나 의상에 관심을 갖고 치장을 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의 외모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점차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상대방 친구에 대하여 시기하기도 하고 흠모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청소년 시기가 되면 또래의 친구들과 과민하게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과 친구를 비교하며 똥보인지 훔썩이인지, 여드름이 많은지 적은지, 또 어떠한 유명한 상표의 옷이나 신발을 신었는지, 무선호출기(삐삐)는 있는지 민감하게 살핍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에서 뒤떨어진다고 느낄 때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셋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를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스스로 자기의 방법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시절에 갖고 있던 의존심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어른이 되고자 하는 독립심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분명히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어른스럽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기도 한 것은 마음 안에 소아기적 의존

심과 성인의 독립심이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적인 관심이 매우 많아집니다. 이성적인 사랑과 동성적인 사랑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즉, 나 이외의 남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장차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각자 자기의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교제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과 동일한 점의 성격과 습관을 맞추어가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친구에 대해 경쟁적이면서도 친구를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불안정하므로 친구를 이상화하고 의지함으로써 만족을 구하려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의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창조하신 것들에 기뻐하셨고 특히 사람에게 대하여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놓으셨습니다. 이 생명 안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성(性)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서로 연합할 때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순수함이 있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그 생명의 기쁨의 근원이 되며 연합할 때에 그 생명은 영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에 대하여 거룩하고 순수하고 연합하며,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정신과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제 민성 군이 고민하는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성 군의 고민은 동성애라기보다 지나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급에서 반장을 할 정도면 민성 군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반장에 대해서 매우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다른 친구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조차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부반장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민성 군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그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나의 가진 것을 낮추어 보면 점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재능과 모습을 주십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찾아 확인하면 굉장한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부반장을 이상화하여 보지 말고, 민성 군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학급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십시오.

글/차준구(송탄신경정신과 의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